

일본의 평화교육

이 창 익*

목 차

- I. 서론
- II. 평화교육을 둘러싼 여건 변화
- III. 평화교육의 패러다임 전환
- IV. 평화교육의 과제와 실제
- V. 평화교육의 내용
- VI. 바람직한 평화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 실태
- VII. 평화교육 관련 사이트
- VIII. 결론

I. 서론

일본의 평화교육은 그동안 사실 전쟁교육(전쟁 실태와 비참함을 전달하기 위한 교육)에 머물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일본이 아시아에 위치한 한 국가로서, 그리고 아시아 여러 나라와 공존해야만 한다는 의식이 국내에 점차 팽배하게 되어 일본의 진보그룹을 중심으로 한 평화교육이 점차 평화교육다운 평화교육으로서 조금씩이나마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고 보여 진다.

이제 일본은 종전 60년을 맞이하였고 평화교육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려 하고 있다. 전후 50년까지의 일본의 평화교육은 제 2차 세계대전에 대한 반성 하에 전쟁의 비참함과 평화의 소중함만을 강조하였다. 이 과정에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그리고 오키나와의 경험이 보편화되었고 전쟁 경험을 기록하여 젊은 세대에게 사실을 전함으로써 다시금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교훈과 함께 이를 바탕으로 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형태였다. 또한 일본이 저지른 각종

* 제주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침략행위나 잔혹행위를 기록하고 전쟁 책임을 물어 가해자로서 반성해야 된다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지만 일본으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아시아 각국은 일본이 이러한 교육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 참배나 역사교과서 등의 왜곡으로 불거진 동북아시아와의 갈등도 크게 기인한다. 이러한 현실은, 일본이 앞으로 얼마나 더, 어떤 방법으로 평화교육을 해 나가야 하는 지에 대한 해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평화교육의 일환으로서 일부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옛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국가기관의 사죄와 보상 문제, 오키나와의 미군기지 축소 및 철거문제 등을 전국적 공동과제로서의 문제 제기와 전쟁경험자들에 의한 전쟁체험을 말하게 하고 반전평화의 결의와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가 수핵여행의 메카가 된 것은 그러한 교육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운동의 중심에는 일본교직원조합(日教組/www.jtu-net.or.jp)에 의한 '평화교육=평화운동'의 방식이 어느 정도 주효했다고도 할 수 있다.

패전 후 60년이 지난 지금 일본의 교육환경은 많이 달라졌다. 새로운 지식정보 사회에 대한 적응은 물론 평화에 대한 개념도 바뀌고 있다. 이런 일련의 변화들이 평화교육에 새로운 전개를 요구하고 있다. 전후 처리의 미해결과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국민의식의 문제는, 전후 60년의 평화교육에 대해서 반성해야만 할 숙제이며 과제일 것이다.

이 논문은 아시아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찾아야만 하는 일본의 생존전략으로서 그리고 자국이 발전하기 위해서 이웃과 더불어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자의식이 평화교육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아가서 적극적 교육형태와 사회적 합의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과 그 실질적인 예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II. 평화교육을 둘러싼 여건 변화

현 시대의 사회 현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부채를 지고 있다. 패전 후 일본은 미·일안보조약 하에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라고 하는 냉전 구조 속에서 일본이

반공의 첨병 역할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패전 얼마 후에 시작된 점령정책의 전환과 그 반대로 진행된 일본의 평화운동은 호헌이 중심이 되었다. 자위대 문제 등의 해석 개헌을 허용하면서도 그 후의 동구 및 소련의 붕괴로 냉전 구조가 종식되어 일본헌법은 일단 정착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과정에서 새로운 전쟁 부채를 짊어지고 있었다. 전후 일본의 부흥에 큰 도움을 준 한국전쟁 특수나 베트남전쟁 특수, 아랍산유국과 미국·이스라엘 간에 벌어진 제 4차 중동전쟁과 오일쇼크, 90억 달러를 쏟아 부은 중동전쟁 등으로 타국의 전쟁에 의한 이익의 향유로 인하여 간접적 부채를 짊어지게 되고 그에 상응한 보답 등이 계속되고 있다. 그것이 특히 이라크전쟁에서 미국의 요청에 의한 자위대의 파병으로 이어지고 있다.

세계의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핵무기폐기 문제에도 일본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책임이 대두되고 있다. 세계 유일의 피폭국가로서 여러 나라 특히, 프랑스의 핵실험에 여러 차례 민간차원의 반대 집회를 하고는 있지만, 일본은 핵실험의 당사자인 프랑스에 원자력 발전소에서 다 쓴 핵연료 재처리를 의뢰하고 세계가 반대하는 플라티니움 재이용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 정책은 일본을 잠재적 핵무기 보유국으로 만들고 있다. 고속증식원형로(高速増殖原型炉) 「몬쥬(もんじゅ)」의 나트륨 유출사고¹⁾로 그 위험성은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다. 즉 제3자로서 전쟁이나 핵실험에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만으로는 더 이상 핵문제에 대하여 대응하기 어려운 사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세계화에 의하여 세계무역과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이 보다 높은 차원으로 강화됨으로서 세계 각국은 다른 나라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지 않으면 안 되기에 이르고 있다. 일본도 기업이나 개인이 활발히 해외진출을 하고 있거나 국내로 상당수의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 결과, 문화와 습관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일본 기업이 해외에서 현지 주민과 마찰을 일으키기도 하고 일본의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가 상대국의 실정을 정확히 반영시키지 못하여 점점 주민생활을 악화시키는 예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종종 일고 있다. 또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를 가혹하고 환경여건이 좋지 못한 3D업종인 노동에 종사시켜 노동재해의 피해자를 양산해 내고 있으며 제때에 급여를 지불하지 않아

1) 후쿠이(福井) 현에서 95년 12월 시운전 중 열을 터빈에 전달하는 배관온도계가 부러져 나트륨이 유출하는 사고가 발생, 현재까지 운전이 중단되었고 최근 재가동 준비 중임

사회문제가 되는 등의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오늘날 세계 각지에서는 이문화(異文化) 접촉으로 인한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격렬한 분쟁지역 외에도 테러나 인권탄압이 원인이 되어 충돌하는 민족·종교·경제대립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직접적으로 무기를 사용하는 전쟁만이 아니라 비폭력적인, 무형의 폭력과 다름없는 형태로 마찰이나 분쟁 등이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셋째, 일본을 포함한 선진제국은 환경이 무시된 수익적 경제발전만을 위하여 대규모적인 자연환경의 파괴를 자행하고 있다. 오늘날 일본의 중심도시나 농촌 지역에서도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야생동물의 종류는 격감하고 있다. 따오기의 전멸은 아주 작은 예에 불과하다. 이러한 자연파괴는 미나마타병(水俣病)²⁾이나 오염이라고는 전혀 모르는 농촌지역까지 대기오염이 생겨났고 신간선(新幹線)소음, 대도시에서의 배기가스 공해, 농약오염이나 의약품 피해, 유해식품 첨가물 등에 의하여 사람들의 신체를 좀먹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의 한가운데에 노출되어 있는 피해자들을 무시한 채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않아 주민의 생존을 점점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오늘날 소위 「해세이(平成) 불황」에 의하여 약간 진정되고 있는 추세이고 시민단체³⁾를 중심으로 환경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는 하나, 이미 만들어진 원자력발전소나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개발계획이 자연과 주민들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생각하면 일본이 현재 평화국가라고는 할 수 없다.

넷째, 경제대국화 과정에서 생활관련 정비가 늦어지고 아이들을 둘러싼 환경은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세계의 아이들을 둘러싼 환경 또한 점차 악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도 전쟁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메스컴이나 각종 매체를 통하여 소개되어 그 비참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만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상상하지 못할 비행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흉악 사건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개개인이 흉악범죄 피해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 또 가정폭력과 자살 등 그때마다 형태를 바꿔 등장하는 아이들의 문제 행동은 오늘날 이지메나 등교거부라고 하는 전형적 형태로 나타

2) 일본 구마모토(熊本) 현 미나마타만 주변에서 발생한 유기수은(有機水銀)중독증

3) 일본의 환경보호단체의 수는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단체로는 그린피스(www.greenpeace.or.jp)가 있다. 핵폐기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 해양생태계, 삼림의 보호와 유해물질의 폐기 등의 운동을 펼치고 있다.

나고 있다. 고등학교 진학률이 96%이상이나 되지만 도중에 학교를 그만두는 중퇴자도 격증하고 있다. 이는 대학의 서열화로 상징되는 학력사회 속에서 진학경쟁이 격화되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이들은 이처럼 직접적으로 억압받고 스스로 위협에 처한 상황에서 부모나 교사를 포함하여 어른들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섯째, 전쟁의 반성 하에 만들어진 전후 교육도 60년이 지나고 있다. 학교교육 현장에, 전 후에 태어난 교사가 거의 모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직접적으로 전쟁 체험이 없는 이들 교사가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전쟁체험을 전해 듣지 못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평화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상과 같은 상황 속에서 아이들 자신도 현재의 상황이 평화라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 전쟁의 비참함을 교육시키고 전쟁에 참전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또한 평화의 소중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평화에 대한 끈끈한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는 없다. 전쟁체험을 풍화시키지 않는 노력을 바탕으로 현실에 맞는 새로운 평화교육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도 일본은 그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Ⅲ. 평화교육의 패러다임 전환

‘평화개념의 패러다임 전환’이란 앞으로 일본이 평화교육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라는 명제와 일치한다. 그 본질적 문제의 요지는 첫째, 오늘날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무기를 사용하는 전쟁뿐만이 아니라 사소한 것부터 큰 것에 이르는 모든 종류의 폭력이고 둘째,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질서가 유지되어 있지 않은 상태나 사소한 분쟁 등을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새로운 생각을 축으로 하여 일본의 평화교육의 방향이 설정되어 나가고 있기도 하다.

3-1. 구조적 폭력과 ‘또 하나의 전쟁’

지금까지의 일본의 평화운동은 상기한 것처럼 특히 태평양전쟁에 대한 반성

위에 주로 전쟁의 비참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전쟁은 폭력의 최상위에 있지만 극복해야만 할 유일한 폭력은 아니며 전쟁이라는 국가적 폭력 외에 성적·인종적 차별이나 범죄 등 여러 종류의 폭력이 존재한다. 아이들 세계에 팽배한 이지메나 체벌, 과도한 수험경쟁 등도 일종의 폭력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을 '구조적 폭력'이라고 부른다. 이는 전후 일본이 사회가 구조적인 틀에 의해 개인을 압박하는 사회형성 과정 속에서 만들어 낸 것으로서 그 극복이 과제가 되고 있다. 이 구조적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일본은 직접적인 전쟁당사국은 아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평화국가라고는 할 수 없다.

현재도 계속 어린이, 여성, 노인, 외국인 등의 사회적 약자가 구조적 폭력에 위협받고 있다. 또 일본경제의 글로벌화는 다른 대륙의 기아나 빈곤에 대한 유한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으로 보면 전쟁만이 평화의 반대개념은 아니라 개인간의 분쟁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 미세한 문제 하나하나가 평화를 위협하는 잠재적 요소가 되는 것이다. 내부적 빈곤이나 국제적인 남북격차, 경제행위를 둘러싼 불공정한 거래 및 경쟁은 세계적인 경제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 사상·신념·종교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인권탄압, 뿌리깊이 남아 있는 인종 및 성 차별과 이지메가 원인이 되어 이루어지는 아이들의 자살이나 성범죄 피해를 당하는 많은 어린이·여성의 존재, 또는 비행과 그 외의 일탈행동 등도 일본이 현재 내세울 수 있는 평화국가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 이것은 모두 극복해야만 할 '또 하나의 전쟁'이며 평화교육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인 것이다.

3-2. 새로운 평화개념

이 '또 하나의 전쟁'의 특징은 그것을 눈여겨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 인간사회는 외견상 질서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사람들이 억압되고 차별받고 괴로운 일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일본이 '경제대국'으로서 포만감을 느낄 때, 지구상에 살고 있는 수억에 이르는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나마타병(水俣病) 등 환경오염에 의하여 병에 걸려버린 사람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고 지나친다. 정보는 알고 있어도 자신의 일이라고는 생각지 않는 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이다.

이렇게 보면 평화를 '전쟁이 없는 상태'로만 단순히 보지 말고 기아나 빈곤, 인권억압과 차별, 자연파괴 등이 없는 상태로 보아야 한다. 이런 신 개념의 평화는 평화를 역행하는 상태와 원인을 알고 평화를 위협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주체의 형성을 요구하고 있다⁴⁾.

이와 같은 자유주의 사관의 주창자의 한사람인 다카하시 시로우(高橋史朗) 씨는 "이제부터 평화교육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해야만 한다"⁵⁾고 하여 새로운 평화교육을 요구하고 있고 일본이 이를 채용해야한다고 하고 있다.

평화란 끊임없이 일어나는 분쟁을 무리없이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에 의해서만 존재한다. 국지적 지역분쟁에서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 물론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개인간의 반목과 대립을 풀고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합의를 형성해 가는 긴 과정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것이 현재 일본이 추구하고자 하는 새로운 형태의 평화교육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IV. 평화교육의 과제와 실제

평화교육의 경험과 역량이 축적됨에 따라 이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의견을 전개하여 부정하려 하고 있다. 평화교육은 이런 비판에 대하여 설득시킬 필요가 있다.

4-1. '사실'의 인식과 시각차

지금까지의 평화교육은 전쟁에 대한 비판적 태도와 인식을 형성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 이유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피폭체험과 오키나와전쟁, 도쿄 대공습 등의 체험을 통하여 각 지역의 전쟁체험을 발굴하는데 있었다. 또 전쟁에 관한 우수한 문학작품을 통하여 전쟁비판의 감성을 키우는 것도 학

4) 沖縄県教育委員会, 『平和教育指導の手引き』, 1993. 5. (<http://www15.ocn.ne.jp/~tonosiro/gakkou/mokuhyo/>의 설명 요약)

5) 高橋史朗, 『平和教育のパラダイム転換』, オピニオン叢書, 1997.3 목차3의 「元氣が出る」平和教育への転換(反日的自虐的な平和教育)의 설명 요약

교교육을 통해 이루어졌다. '사실'에서부터 출발'과 '전쟁비판의 감성을 키우는' 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사실'을 '일정한 해석'을 통하여 전쟁의 구조를 인식하는 과제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가치관이 다양화하고 활발한 국제교류가 진행되는 오늘날, 아무런 이론(異論)도 없는 '사실'은 없어졌다. 문부과학성이 역사교과서 검정에서 일본의 대 중국침략이나 한반도의 침략행위를 '진출'이라고 한 '침략·진출' 논쟁에서도 나타났듯이 '사실'은 반드시 해석에 매개되어 존재한다. 피해자 입장과 가해자 입장은 전혀 다르며 '사실'의 범위를 어느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렇게 되면 평화교육과 평화운동이 축적된 '사실'은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론의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4-2. 평화교육의 실제

오늘날 아이들 자신은 여러 정보를 각종 문헌이나 매스컴, 인터넷을 통하여 얻으면서 직·간접적인 체험을 하고 있다. 학교나 교사가 중요하고 가치 있는 정보원인 시대가 아니다. 주입식 평화교육을 지양하고 정확한 인식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다. 다양한 입장에 서서 토론을 활성화시켜 창조적인 평화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토론 문화는 상당한 효과와 함께 아이들의 인식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 평화교육을 토론식으로, 그리고 장시간에 걸쳐 조합함으로써 평화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는 교육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한 예를 들어보도록 한다.

나고야(名古屋)의 고난시(江南市) 시립호테이중학교(江南市立布袋中学校)의 선택사회과에서 채택하고 있는 「개인에 초점을 둔 평화교육」⁶⁾의 과정에 의하면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하에 평화의 개념을 합리적으로 습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4-2-1. 평화교육의 동기

전쟁교육이란 전쟁의 실태와 비참함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고 평화교육이란

6) <http://www.tcp-ip.or.jp/~syaraku/sentakku.htm>의 내용에 의함

전쟁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현재의 일본은 전쟁교육은 실시하지만 평화교육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평화교육은 어른이 깊어져야 할 책임이자 의무이며 과거의 불행을 차세대 아이들에게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 평화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는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4-2-2. 바람직한 학생의 자세

- ① 지적호기심과 주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는 의지
 - ② 의심스러운 문제에 대하여 의욕적인 해결 의지
 - ③ 새로운 문제에 대한 여러 방법을 통해 연구하고 해결할 능력 배양
 - ④ 배운 것을 생활에 응용하고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태도 제시
-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지도과정을 만들었다.
- ① 역사의 복잡과 개별 면담에 의해 각자의 문제의식을 발굴하고 개인의 흥미와 관심에 맞는 테마를 결정
 - ② 조사방법을 지도하고 주변의 신문이나 텔레비전, 잡지 등에서 전쟁에 관한 정보 수집
 - ③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당시 사진이나 출판물, 전후 공개된 기밀 자료와 증언, 당시 체험담을 통하여 생각하고 판단함
 - ④ 공부한 것을 토대로 사회에 공헌할 터를 만들어 성취감을 고양시킴

4-2-3. 개인의 파악과 테마결정

6명의 학생과 면접을 통하여 개개인의 흥미와 관심을 찾아내어 조사방법, 대상에 지원방법을 생각하였다.

A. 이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전쟁에 특별히 문제의식이 없다. 지적능력이 뛰어나고 컴퓨터에 흥미가 있다.

B. 「불쌍·비참」하다는 것으로만 전쟁을 생각하고 있다. 원폭에 흥미를 가지고 있다.

C. 전쟁터 무사를 아주 좋아하여 「전쟁」이라는 단어를 듣고 강좌를 선택했

다. 武田信玄과 上杉謙信에 흥미를 가지고 있고 海音寺潮五郎의 『天と地と』도 이미 읽었다.

D. 역사적 지식은 거의 없지만 전함 모형을 수집하고 있고 전함 지식이 풍부하다.

E. 수험 지식은 풍부하지만 전쟁 실태나 비참함은 모르고 있다. 복지활동을 하고 있다.

F. 수험 지식은 풍부하지만 전쟁 실태나 비참함은 모르고 있다. 가정과목을 잘한다.

4-2-4. 연간계획

선택 사회는 매주목요일 3교시에 있다. 학생은 방과 후나 토요일, 여름방학 때 에도 자주적 활동을 하였다.

월별	시수	주요 내용
4 ~ 5 월	4	근대사 복습, 주제 결정, 신문기사·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녹화한 비디오 등 자료수집 개시
6 ~ 8 월	6	조사활동·제 1 차 작성
9 ~ 10월	5	문화제 준비
10월	1	전쟁당시 음식 조리·시식회
11월12일		문화제에서 전시발표 (전후 5 0 년전)
11월 ~	6	토론준비
1 ~ 2 월	2	토론
2 월	2	메시지 발신·연구발표회

활동장소는 교실과 고난(江南) 시립도서관에서 문헌조사, 학교 가까운 집으로 청취 조사를 하게 하였다. 또한 전쟁 리스트를 작성하여 학생들에게 보였다. 필요한 자료는 빌려서 활용하였다. 전쟁자료를 한곳에 모으고 학생은 언제라도 조사가 가능하였다.

4-2-5. 과제추구의 실제

(1) A·B(남자)

A와 B는 둘 다 특별히 전쟁에 대한 문제의식은 없지만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또한 A가 컴퓨터를 잘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통하여 제3자와 토론을 하는 것으로 학습의욕을 환기시키려고 생각했다. 1년간 원폭에 대한 조사를 하기로 하였다.

a. 온라인을 통한 토론

당초에 토론 상대를 컴퓨터에서 널리 모집하려 하였으나 공동연구자인 선생님의 협력을 얻어 그 선생님이 상대역을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학생은 상대방의 신분을 모르고 있다.

장점으로는 첫째, 학생의 기초지식이 적으므로 조사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데 PC는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다. 학생은 상대를 모르므로 좋은 의미에서의 압력을 줄 수 있다. 온라인은 상대방 형편과 관계없이 언제나 보낼 수 있고 언제나 꺼내 볼 수 있다. 실제 주제는 '만주사변에서 태평양전쟁에 걸친 전쟁은 일본의 침략전쟁이었는가'로 정하였다. 학생은 긍정쪽이 되어 발신하였다.

다음은 학생이 작성한 토론 내용이다.

▶ 후치중학교 선택사회과 발 제 2신

純無頼庵씨 재빨리 토론에 응해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純無頼庵씨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주사변은 당시 중국 국내사정과도 크게 관련이 있고 일방적 침략이 아닙니다. 그 증거로 만주를 일본의 식민지로 만든 것이 아닌 만주인 황제를 중심으로 한 '만주국'을 건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 논지에 반대합니다.

1. 만주인 황제를 중심으로 한 '만주국'건설은 만주인이 만든 나라라고 보여주기 위해 일본인이 만주인 황제를 내세운 것이고, 황제의 실질적 권력은 거의 없었다.(A)
2. 만주에 재벌을 세운 것이고 실질적 권력은 거의 없었다. (B)
3. 지난번 논지를 보충하면, 관동군이 柳条溝를 폭파했는데 중국군이 폭파한 것이라는 구실을 만들어 중국군을 공격하려한 계획이 사전에 만들어져 있었다.(B)

위와 같이 만주사변은 침략이다. 반론 부탁한다.

처음은 교과서 지식정도의 논의였지만 상대방에게 반론하기 위하여 보다 상세한 자료를 보게 되고 횡수가 거듭될수록 내용도 충실하였다.

이런 식의 문제제기와 반론을 통하여 온라인상의 논쟁을 시작하여 큰 변화를 보였던 것은 A가 아닌 전쟁을 심정적으로만 생각하던 B였다. 차츰 B의 반론이 질적·양적으로 높아지고 자료를 바탕으로 이론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b. 원폭조사

두 사람이 조사를 병행했던 것은 원폭조사이다. 나가사키·히로시마가 피폭당한 경위에서 중국과 프랑스의 핵실험에 이르기까지 핵무기와 관련된 신문 기사를 스크랩했다. 또 “고난에 원폭이 떨어진다면” “나고야시에 원폭이 떨어진다면”이라는 예상을 하여 피해예상 지도를 작성하였다. 이 조사를 위하여 연말에 처칠발언의 가부를 묻는 토론을 전개할 예정이다.

(2) E·F(여자)

호테이(布袋)지구는 공습으로 28명이 사망했다.(『空襲の記録●名古屋を中心に』에 의함) 그러나 구체적 내용은 모르고 있다.

- 공습 피해지역인 五明·今 시장지구를 한집 한집씩 물으면서 간다. E·F는 피해지구의 청취조사를 하고 사망한 사람의 이름을 한사람 한사람 확인하여 그 수의 진위를 파악하는데 있다. 또 F는 당시 생활모습을 듣고 의·식의 재현을 시도하였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 토요일에 양로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이야기를 듣는다.

조사결과 중 일부이다.

▶ S·H씨 (69세)

쇼와20년 7월13일과 7월28일, 두 차례에 걸쳐 이치노미야시(一宮市)가 B29에 의해 공습을 당했습니다.

특히 두 번째 공습은 후치의 五明, 小折에 사상자를 내었습니다. 五明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화상을 입고 사망자도 두 명이었습니다. 小折에서는 우리 집 바로 뒷집의 아버지가 출정한 상태여서 할머니, 아내, 아이

두 명이 함께 방공호로 피신하였는데, 자기네 발이 현재 간사이(関西) 전력 철탑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 쪽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여 일가 4명과 옆집에 도우려고 온 여자를 데리고 갔지만, 거기서 네 명이 즉사 상태가 되고 아내만이 불타 남은 집으로 돌아왔다. 모두 행방이 묘연하여 찾던 참에 자기 집 입구 부근에서 황린소이탄(黃磷燒夷彈)을 맞아 괴로워하는 것을 발견했지만 화상이 너무 심해 다음날 죽은 것입니다.

마침 그 때 할아버지 친구로부터 들은 이야기였는데 이치노미야에서 불을 피해 동쪽으로 계속 피하여 8킬로미터 떨어진 小折까지 피했다고 합니다. 28일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의 사건이었습니다.

칭취에 의해 이미 23명의 희생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았다. 그 주소를 다 른 소실가옥과 함께 지도에 써넣었다.

F는, 공습피해조사를 하면서 당시의 음식에 대한 조사도 하였다. E는 “이제까지 전쟁의 비참함은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알고 있던 것은 비참함의 범주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었다. 집에서 들은 아즈다(熱田) 공습 이야기는 지금 생각해도 움찔거린다. 그것이 현실이었을까?라고 생각하면....아니 현실에 있었던 것을 모르면 평화에 대해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감상을 쓰고 있다. 둘은 나고야시 박물관과 마츠자카야(松坂屋). 이치노미야시 스포츠센터 등에서 전쟁전도 견학하고 조사하였다.

4-2-6. 금후의 스케줄

(1) 전시중의 요리시식회 (10월)

F가 여름방학에 조사한 전쟁당시의 요리를 만들어 시식회를 가질 예정이다.

(2) 문화제 전시 (11월)

문화제에서는 전쟁피해를 중심으로 한 전시발표를 한다. 전쟁관계 연표와 주요 사건을 게재한 신문의 실물을 크게 카피하여 학생이 해설한 개요를 잘 이해하기 위한 코너를 만든다.

주요 전시물

① 전쟁당시·전후 신문카피 전시 및 해설

- ② 만약 고난시에 원폭이 떨어진다면 - 피해예상지도
- ③ 교과서, 해설
- ④ 고난시 공습피해지도
- ⑤ 청취 조사결과
- ⑥ 소이탄(燒夷彈)
- ⑦ 호테이북초등학교 쇼와 20년 학교일지

(3) 토론

2월에 A·B의 조사 성과를 살린 토론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 준비는 신문 기사·텔레비전 프로그램 녹화 등을 5월부터 하고 있는데 11월부터는 본격적인 자료를 갖추고 있다. 토론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떨어진 수일 후, 1945년 8월 16일, 처칠 영국 수상은 “원자폭탄을 사용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의견이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일본과의 싸움에서 백만명의 미군과 23만명의 영국군의 생명이 희생을 치루기보다는 오히려 원자폭탄을 사용하는 편이 낫다”는 이 처칠의 발언에 찬성인가! 반대인가!

실제 토론에서는 A·C·E를 반대측, B·D·F를 찬성측으로 하여 토론할 예정이다.

(4) 메시지

원폭투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여러 각도로 토론할 예정이다. 이것을 정리 하여 인터넷 등에 올려 사회에 평화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킬 예정이다.

4-2-7. 고찰

과제가 계속 진행 중이지만 이미 몇 가지의 성과와 문제점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성 과】

- ① 청취와 온라인 등에 의해 정보수집이 원활해지고 조사방법의 폭이 넓어졌다.

- ② 학생의 흥미와 관심에 맞춰 연구주제를 설정하고 지금까지 경험이 없는 학습활동을 함으로써 학습의욕이 향상되었다.
- ③ 직접 당시의 생활모습을 청취하고 전쟁 중에 있었던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 ④ 토론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과거 전쟁의 근본원인을 알고 이론적으로 분석한 후, '자신이 지금부터 평화를 만든다'는 의식을 가지게 할 수 있었다.

【문제점】

- ① 정규 선택사회과 시간이 9월말까지 11시간 밖에 없고 대부분이 여름방학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등 시간의 활동이 많았다.
- ② 청취조사에 지역협력이 절실히 필요하였다.
- ③ 개인의 흥미로운 분야를 알기 위해서는 내용이 전문적이 되어야 하고 지도자에게도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일이어서 외부의 조언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선택교과에서, 개인의 흥미에 따라 교육과정을 짜기 때문에 교육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활동 범위를 넓게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룰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학교교육과정의 하나로써 평화교육을 활성화시켜나가자는 움직임이 일부에서나마 이루어지는 것은 지금까지의 전쟁교육에서 점차 탈바꿈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4-3. 평화교육의 실천과제

세 가지로 그 과제를 제시할 수 있는데, 첫째 타당한 해석도식에 의한 구조적 인식, 둘째 실태와 원인을 스스로 분석할 능력을 양성시키는 자발적 학습, 셋째 즐거운 평화교육을 추구하는 일이다. 평화교육을 즐겁고 자유롭게 해야 삶의 원동력이 되는 평화교육을 창조할 수 있다.

미야기(宮城)고교 네트워크가 주최하는 평화교육 프로그램인 Ppin(The Peace Project in Hiroshima)는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구상되었다.

첫째, 평화에 대한 부분이 급속히 변용되어 젊은 세대들이 전쟁을 긍정한다든가 폭력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위험성이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평화란 단지 직접적 폭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닌 차별 등의 구조적 폭력의 문제이다. 말로만으로 폭력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 학습활동이란 체험→인식→제작→실천으로 간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가능한 한 개인이 아닌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 학습활동 중에서의 집단적 사고에 의한 반성이 '신체적 이해'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기존의 평화인권교육으로 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연극, 관현악, 취주악, 밴드, 회화, 공예, 조각, 사진, 문학, 영상, 방송, 댄스 등과 같은 표현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히로시마의 8월6일을 직접 체험하게 하여 자기가 그 속에 몰입하여 그것을 표현을 하도록 한다.

이 「PPin히로시마」의 핵심은 작품을 제작하는 일이다. 소위 '평화와 문화활동' 에도 충분히 들어갈 수도 있는 내용이다. 여기서 '평화의 학력'을 제안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평화교육의 법적 근거는 교육기본법에 있는데 '평화적 국가 및 사회의 형성자'육성이 평화교육이다. 그 평화교육을 통하여 몸에 밴 학력이 '평화 학력'이고 이 학력은 '이해=신체적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평화 학력'을 기르려는 시도인데 이것을 교실 안에서 활용하려 한다. 평화학습은 특히 한사람 한사람의 생사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충분히 그것을 잘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각 개인의 생사에 공감과 이해 없이는 '평화 학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해'에 연결된다.

또한 20세기 이후는 한사람 한사람이 전쟁을 기억하고 있는 시대이기도 하다. 19세기까지는 전쟁에서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한 시대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20세기는 전쟁과 폭력의 세기임과 동시에 전쟁보다는 평화가 가치가 있다고 인식하는 세기인 것이다. 평화교육 수업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좁고 깊이 시간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다.

평화교육을 하는데 있어 「Ppin히로시마」 수업을 적용하는 것은 학습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것이다. 소수에 의한 공동학습, 작업학습, 좁고 깊게 시간을 들여 하나 하나를 배우는 학습, 그리고 자신의 학습 성과를 무기로 세계와 연결하는 학습이다.

또한 '전쟁은 안 되지만 전쟁이 있었기에 얻어지는 것이 있다'고 할 때, 긍정적으로 답할 수 있는 교사와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학습이다. '평화 학력'은 이와 같은 지성적 학습구조에서 태어난 것이다.

현재의 일본은 반 평화적 발상이 조금씩 대두되고 있고 전쟁피해자에 대하여 강자의 논리로 시종일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발상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문화적 표현 활동과 체험 학습을 결합하여 새로운 평화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각 학교에서는 어렵지 않게 평화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도요하시시(豊橋市) 교육위원회 산하 평화교육위원회가 마련한 어린이들을 위한 평화교육에는 전쟁 중의 생활체험과 평화교육에 관한 비디오 상영(「はだしのゲン⁷⁾(맨발의 겐)」, 「青い目の人形物語⁸⁾(파란 눈의 인형이야기)」)만을 가지고도 효과적인 평화교육 실시하고 있다.

딱딱한 테마에서 탈피한 이런 형태의 평화교육은 교사들도 아주 즐겁게 실시하게 되고 있고 각 어린이와 함께 하는 평화교육,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아이들과의 토론이 이루어지는 평화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V. 평화교육의 내용

아이들과 학생들을 위한 평화교육은 전쟁교육에서 21세기에 걸맞는 역사교육, 개발교육, 국제교육, 인권교육, 핵폐기문제를 포함한 군축교육, 환경교육 등으로 변모되고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

5-1. 평화교육의 계승과 새로운 전개의 필요성

지금까지의 중심테마였던 '전쟁'은 무엇보다도 가장 비참한 분쟁으로서 보다

- 7) 中沢啓治 자신의 원폭 피폭체험을 토대로 그린 다큐멘터리 만화이다. 작품의 내용이나 표현에 있어 많은 논란거리를 제공하였지만 작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체험한 참상이나 시대 배경, 세상을 풍속 등을 잘 그려내어 국내외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았다. 1980년 이후 일반 도서관에도 비치되어 있고 초중학교의 많은 도서관에 비치되어 평화학습의 중요자료로 삼고 있다. 현재 만화, 만화영화, 뮤지컬, 그림책으로 출판 또는 공연되고 있다.
- 8) 1927년 미국에서 평화의 사절로 보내온 12,000여개의 '파란 눈의 인형'들은 요코하마에서 전국 각지의 초등학교로 보내졌다. 처음에는 대단히 환영받았지만, 태평양전쟁의 여파로 불에 타거나 공습으로 없어지기도 하였지만 몇몇 사람들에게 보호에 의하여 일본 전국에 256개가 남아있다. 평화교육에 이 이야기를 많이 이용한다.

넓은 영역에서 인식한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물론 오키나와전쟁과 도쿄 대공습 실태를 피해자 입장에서 인식하는 일과 그 직접적 책임이 있는 천황제와 군부지배체제를 비판하는 것, 또한 아시아 각국에 대한 침략행위와 위안부 문제, 징용문제 등의 가해행위와 성격을 기록하고 인식하고 반성하는 것도 평화교육의 불가결한 과제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평화교육은 외형적 학습이 아닌 크고 작은 분쟁을 구체적으로 처리하는 일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 평화교육을 위해서는 역사·개발, 국제·인권교육을 인식에서 실천을 포괄하는 형태로 전개해 나가려 하고 있다.

이것은 전후 교육의 출발 당시와는 다른 평화를 중심으로 새로운 영역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5-2. 새로운 평화교육의 제 영역

이제부터 일본이 구체적으로 취하고자 하는 평화교육은 1) 역사, 2) 개발, 3) 국제, 4) 인권, 5) 군축(핵폐기문제 포함), 6) 환경이다.

5-2-1. 역사교육

역사교육은 우선 태평양전쟁의 피해 당사국인 아시아 제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일본 청소년이 과거의 역사로부터 인식해야 할 내용을 다루고 있다. 각료들의 잇단 망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침략전쟁의 희생자인 아시아 국민에 대한 인식이 정치가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현재는 기껏 '불전결의'나 위안부에 대한 개별적 보상 등의 대응밖에 못하지만 결국 세계의 비판을 수용하는 교육으로 만드는 것이 역사교육의 과제이다.

5-2-2. 개발교육

국내외의 소외세력과 기아에 허덕이는 세계 각국에 대한 문제인식을 넓혀, 상호공존할 수 있는 길을 추구하기 위한 개발교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5-2-3. 국제교육

세계가 서로 경제와 문화교류가 빈번한 가운데 국제교육은 커뮤니케이션과 이해 부족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다양한 문화의 존재를 인정하고 기본 인권을 존중하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서로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공통의 언어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5-2-4. 인권교육

인권교육은 평화교육의 근간을 이루며 인종, 성, 가문, 종교, 사상 등 모든 차별을 극복하고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것이 평화의 기초가 된다.

5-2-5. 군축교육

냉전체제가 붕괴되었다고는 하나 한반도처럼 분단국가가 존재하고 민족적·종교적 대립이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새로운 분단국가를 만든다. 군축을 진행시키고 전쟁을 없애기 위한 교육이야말로 평화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핵무기 폐기를 위한 교육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모자라지 않는다. 원자력발전소 용이라고는 하나 핵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 치명적 사고 가능성 외에 핵 확산 위험이 잠재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그 위험성을 알린다.

5-2-6. 환경교육

지구온난화와 오존층 파괴, 벌채, 폐기물과 해양오염 문제 등은 인류 공통의 문제이고 국제적인 협조 하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인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일종의 폭력이므로 평화교육의 중요한 과목으로서 다룬다.

Ⅵ. 바람직한 평화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 실태

6-1. 주요 연구소

일본의 평화연구와 평화교육은 시대를 발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한다는 소명을 가지고 '반전평화교육에서 평화공생교육'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영역에 부응하여 적극적인 평화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연구소가 나가사키와 히로시마를 중심으로 한 평화연구소이고 그 외에도 크고 작은 다수의 연구소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연구소와 내부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6-1-1. 나가사키 평화연구소(<http://homepage1.nifty.com/institute/>)

1999년, 鎌田定夫씨에 의하여 「나가사키 평화연구소」 설립구상이 발표되어 각 방면의 지원을 호소하면서 이루어졌다. 이 연구소는 나가사키가 수백년에 걸친 해외교류와 신교(信教)의 자유, 원폭피폭이라는 독자적인 역사적 체험과 문화를 짊어진 피폭자와 시민에 의해 자주적 민간 평화연구소로 구상되어 제창자에 의한 자금(5000만엔) 외에 아무런 공적 재정지원도 없이 설립준비를 개시했다. 다성 영역을 중심으로 연구 활동을 하며 특히 핵무기 폐기와 핵 피폭, 전쟁피해 문제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연구영역으로는,

- A. 전쟁과 핵피해, 핵무기·군비문제 연구
- B. 평화·군비·안정보장문제의 연구
- C. 인권·개발·환경문제의 연구
- D. 평화사상·평화교육·평화문화의 연구
- E. 평화정보 네트워크·국제교류 등이고

활동상황을 보면,

1999년에 「핵확산 금지·핵군축에 관한 도쿄포럼」, 「핵무기 폐기를 요구하는 히로시마·나가사키 시민집회」, 「이제야말로 핵무기 폐기를! 시민집회」, 나가사키 프레집회 등을 하였고 그 외 9건의 강연·연구회·심포지엄 활동을 하면서

적극적 활동을 펴고 있다.

2000년도에는 1월 29일의 「핵무기 폐기 2000년 나가사키시민회의 결성집회」(나가사키 원폭자료관) 등 8건의 활동을 하였다. 시민·학생 등을 대상으로 '평화연구 문제를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함께 오늘날의 과제를 생각한다'는 주제로 「나가사키 평화연구 강좌」가 시작되었다. 4월부터 1월까지 매회 제3토요일 오후에 개강하고 연 10회 시리즈로 실시하였다. 2000년도의 「나가사키 평화연구 강좌」는 「평화란 무엇인가. 평화학 입문(히로시마 슈도대학·岡本三夫씨) 등 10회 실시되었다. 2002년도에는 4월22일 「핵무기 폐기 나가사키시민회의」 발족 집회 등 4건이 있었고 2002년도 「나가사키 평화연구 강좌」는 4월 13일의 특별 강좌 「21세기 평화연구의 과제 - 鎌田定夫先生에게 배운다」(가고시마대학·木村明씨) 등 10회 실시하였다. 2003년도에는 2월 16일 총회를 개최하는 등 6건의 활동을 하였고 특히 3월 23일에 긴급 심포지엄을 열어 참가자 일동의 명의로 「미국·영국의 이라크 공격에 대한 긴급 어필」을 채택하여 미영 수뇌, 유엔사무총장, 일본 수상에게 보냈다. 2003년도 「나가사키 평화연구 강좌」는 「헌법에서 평화를 생각한다 - 북동아시아와 일본」 등 10회 실시하는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6-1-2. 히로시마 평화연구소(<http://serv.peace.hiroshima-cu.ac.jp/>)

히로시마의 역사적 체험을 세계인들에게 전하고 이해와 공감을 얻기 위한 지적 기반을 구축하며 '소극적 평화'가 아닌 '적극적 평화'달성을 목표로 전 세계의 제 문제 해결에 공헌할 필요성과, 「히로시마에서 발신하는 평화학」을 구축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 나가기 위하여 히로시마 시립대학 부속기관으로서 1998년 4월1일에 설립되었고 현재 7명의 전임연구원을 두고 있다.

세계 최초로 핵무기에 의한 피폭을 체험한 도시로서의 역사적 배경으로 학술 연구 활동을 통하여 핵무기 폐기를 위한 역할을 담당함과 동시에 지구사회가 직면한 제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세계평화 창조, 유지와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할 국제적 평화연구 기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의 평화연구기관과 적극적인 제휴를 통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평화연구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학술연구 성과를 사회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각종 강연

회, 공개강좌, 심포지엄, 출판활동 등을 통하여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사회에 공유하고 있다.

연구영역으로는,

- A. 평화이론과 평화연구 방법론
- B. 히로시마·나가사키의 원폭체험
- C. 핵무기 및 통상무기 개발, 생산, 전개, 확산, 군축, 폐기
- D.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의 전쟁, 평화, 불화, 분쟁처리
- E.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의 평화사상·문화·운동의 발전, 변천 활동상황을 보면,

프로젝트로서 2000년 4월부터 현재까지 「신개입주의 정통성과 합리성」(보고서) 등 총 8건을 수행하고 있다. 심포지엄 및 강연회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 「개설기념 심포지엄」 등 14회, 연구포럼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 「CTB교섭의 경과와 문제점」 등 27회, 연구발표회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21세기의 핵군축연구회 보고」 등 3회, 시민강좌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동북아시아 지역과 미래-21세기의 상호 이해를 향하여」 등 3회, 뉴스레터는 1998년부터 평균적으로 년 3회 발행하고 있으며 2편의 출판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6-1-3. 히로시마 평화교육연구소(<http://www1.ocn.ne.jp/~hipe/>)

1972년에 개설된 히로시마 평화교육연구소(약칭: 広平研)는 히로시마를 원점으로 하는 평화교육의 내용·방법의 연구, 창조에 공헌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국민의 입장에 서서 국민의 생각과 손으로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모든 아이의 미래를 풍요롭게 하기 위한 교육연구 활동을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활동 영역으로는

- A. 자주적 교육연구 활동과 보조를 맞춰 지역과제를 검토한 후 일상적 조사연구·검증을 깊이하고 국민교육운동을 추진
- B. 민주교육을 추진하는 모든 운동과 제휴하고 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국내외의 민주적 제 기관, 제 단체와 평화교육 추진을 위한 교류와 센터로서 역할

연구 분야로는,

A. 평화교육

B. 지역과제

국제교류의 활동상황을 보면,

1973년부터 연보인 「평화교육연구」를 발행하고 있고 각 해마다 활동방침과 연구과제를 정하여 이를 실행해 나가고 있다. 1982년에 반핵 히로시마집회를 広半研 10주년 기념집회로 여는 등 해마다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특히 출판물을 통하여 평화교육의 학습효과를 노리고 있다.

출판물로는,

a. 평화학습 안내서

- 히로시마로의 여행(ヒロシマへの旅) 개정판(중·고교용 히로시마 수학 여행·견학여행 평화안내)
- 걸어보자 히로시마의 거리(あるいてみよう広島のまち) 개정판(초등학생용 히로시마 수학여행·견학여행 평화안내)
- 피폭건축물을 찾아서(被爆建造物をたずねて)(초·중·고교용)

b. 아동·학생용 부교재

- 히로시마-이것은 우리들의 외침입니다(ひろしま-これはわたしたちのさけびです)(청표지)
- 히로시마-원폭을 생각한다(ひろしま-原爆をかんがえる)(황표지)
- 히로시마-오늘날 핵시대를 산다(ひろしま-今日の核時代を生きる)(초록표지)
- 히로시마-15년 전쟁과 히로시마(ひろしま-15年戦争と広島)(적표지)
- Let's Cry For Peace!
- 언제 어디서라도 평화교육을(いつでもどこでも平和教育を)
- 다미짱의 긴 밤(たみちゃんの長い夜)
- 아오기리의 소원(アオギリのねがい) 2개국어판
- 히로시마에서 학습하는 평화교재집 1·2집(ヒロシマで学習する平和教材集第1集・第2集)

c. 평화교육을 위한 시청각교재

- 전시용조사진 「히로시마·나가사키」
- 조(組)사진 「한국독립기념관 전시사진」

- 맨발의 겐(「はだしのゲン」)CD-ROM

d. 피폭체험 수기

- 류등(流灯)
- 이 아이들에게 계속 말해야 할 것-히로시마 원폭 교직원 수기(この子らに語り継ぐもの-広島原爆被爆教職員の手記)
- 피폭2세로 산다(被爆二世として生きる)
- 히로시마의 비석(ヒロシマの碑)(宇和純/ 전 히로시마현 교조위원장의 유고와 사진)
- 「헌법이 위험하다」 제9조는 인류의 보물(「憲法が危ない」第九条は人類の宝物)
- 새로운 헌법 이야기(あたらしい憲法のはなし)
- 가해책임을 분명히(加害責任を明らかに)
- 아시아를 맛보는 책(アジアふれあいブック)
- 아시아를 맛보는 책-지도하기 위하여(アジアふれあいブッカー指導のために)
- 大久野섬 독가스공장 그 피해와 가해(大久野島毒ガス工場その被害と加害)
- 독가스 섬-교육현장에서의 평화교육 교재화 방안(毒ガス島-教育現場での平和教育教材化へのとりくみ)

또한 연구소에서는 히로시마현의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평화교육 앙케이트를 5회에 걸쳐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은 표로 나타내었다.

조사대상은 5년간 실시하였는데

1968년/1956명/초등5교(373명)·중학7교(1583명)

1975년/2340명/초등20교(573명)·중학20교(1767명)

1979년/2696명/초등18교(610명)·중학17교(2086명)

1987년/7330명/초등61교(3416명)·중학36교(3914명)

1996년/4697명/초등42교(1492명)·중학26교(3205명)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 조사를 통하여 아이들의 변화를 파악하여 평화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앙케이트조사 항목과 결과⁹⁾는 <표 1>과 같다.

9) 결국 일본 초·중교의 평화교육 내용은 좁게 말하면 원자폭탄 투하에 관한 내용이며, 전쟁의 원인과 과정, 일본의 책임 등에 대한 언급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1〉 평화교육 앙케이트

	1. 원폭이 처음 떨어진 나라는?	2. 당시 몇분에 떨어졌나?	3. 사망자 수는(20만)	4. 그 상황을 어떻게 알았나?			5. 원폭 자료관은 견학했는가?
				학교선생님	가족	텔레비전	
1968	95.1%	56.8%	44.4%	47.7%	63.6%	69.9%	77.3%
1975	92.8%	44.7%	39.6%	53.4%	65.1%	59.4%	80.6%
1979	93.1%	65.7%	45.2%	61.3%	56.3%	61.4%	86.5%
1987	94.0%	62.4%	43.3%	53.6%	45.8%	62.3%	84.2%
1996	87.7%	45.2%	35.4%	50.0%	39.8%	50.8%	86.8%

	6. 원폭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는 노래는?			7. 학교에서 원폭학습을 했는가.	8. 원폭투하 목적은 무엇인가			
	원폭을 용서할 수 없다(原爆を許すじまい)	파란 하늘 (青い空)	夾竹桃노래 (夾竹桃のうた)		대소 전략	조기 결전	실험을 위하여	싫어 해서
1968	35.9%			33.5%	16.5%	24.6%	45.0%	6.8%
1975	59.3%	22.2%	28.2%	56.5%	23.0%	21.1%	46.9%	5.3%
1979	70.4%	35.2%	30.7%	73.3%	21.3%	22.6%	47.8%	5.5%
1987	50.6%	57.0%	29.5%	86.8%	9.7%	32.3%	33.4%	11.3%
1996	9.3%	61.8%	21.7%	86.5%	8.7%	31.8%	32.7%	12.3%

위의 8항목 가운데 1. 2. 3. 4. 8번 항목은 해가 거듭될수록 비율이 낮아지고 5. 7번 항목은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6번 항목의 일부는 높아지고 일부는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항목의 내용을 보면 자료관 방문이나 원폭 학습 등 평화교육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꾸준히 그 비율이 상승하여 제대로 된 평화교육이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1-4. 히로시마대학 평화과학연구소

(<http://home.hiroshima-u.ac.jp/%7Eheiwa/>)

쇼와 50년 7월 8일에 평화과학에 관한 연구·조사와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학내에 설치하게 되었다. 이 센터는 평화학의 학술적 연구기관으로서 일본 최초의 것이고 국립대학의 유일한 연구기관이다.

연구영역을 보면

- A. 평화과학에 관한 연구. 특히 학내외 연구자를 중심으로 평화과학연구의 추진과 조직화

B. 평화과학에 관한 문헌자료 및 데이터의 수집과 정리

C. 평화과학에 관한 연구 성과, 정보 제공

등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평화연구기관과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정보교환 및 연구성과의 공유 등을 하고 있다

6-2. 기념관 및 자료관

6-2-1. 오키나와 평화기념 자료관

(<http://www.peace-museum.pref.okinawa.jp/>)

1945년 3월부터 약 90일에 걸친 오키나와전은 오키나와를 초토화시키고 말았다. 군인보다 민간인 전사자가 훨씬 많았고 그 수는 십수만 이상에 이르렀다. 이러한 아픔이 두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역사적 교훈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만들어진 기념관이다.

6-2-2.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과 자료관

(<http://www.pcf.city.hiroshima.jp/virtual/>)

평화기념공원은 1954년 4월에 완성되었고 총 면적은 37,000평이다. 평화기념 자료관과 국제회의장이 있고 공원 내에는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 등이 세워져 있다.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은 동관과 서관으로 나누어져 있다. 동관은 3층 건물로서 각층마다 주제별로 달리 전시되어 있다. 1층은 '폐허의 히로시마', 2층은 '전쟁·원폭과 시민', 3층은 '평화로의 길'이라는 주제로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다. 서관은 1층으로 길게 세워져 있는데, 주로 피폭일인 1945년 8월 6일 당시의 상황을 재연하고 있다. 이 기념관을 통하여 핵무기의 위력과 평화의 소중함을 대내·외에 잘 나타내고 있다.

6-2-3. 나가사키 원폭자료관

(<http://www1.city.nagasaki.nagasaki.jp/na-bomb/museum/>)

피폭의 참상과 원폭이 투하된 경위, 핵무기 개발의 역사와 평화추구를 위한

메시지 등이 전시되어 있다. 피폭 당시의 참상이 재현되어 있다.

6-2-4. 시즈오카 평화자료센터

(<http://homepage2.nifty.com/shizuoka-heiwa/>)

시즈오카 대공습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쟁에 관한 자료수집과 전쟁과 평화에 관한 문고를 설치하여 평화교육의 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6-2-5. 재단법인 히로시마 평화문화센터

(<http://www.pcf.city.hiroshima.jp/hpcf/index.cgi>)

재단법인 히로시마 평화문화센터는 히로시마의 피폭체험을 토대로 국내외 평화연구기관, 관계단체 등과 연대하고 평화사상 보급과 국제상호 이해·협력 증진을 꾀하고 세계평화추진과 인류복지 증진을 시키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 센터는 히로시마시의 하나의 국(局)으로 시작하였으나 1976년 4월 1일에 독립재단법인으로 거듭 태어났다. 시설로는 평화기념 자료관과 히로시마 국제회의장, 히로시마시 유학생회관, 국립히로시마 원폭희생자추도 평화기념관을 두고 있다.

공익사업으로는

- A. 피폭체험계승 보급사업
- B. 평화의식 고양사업
- C. 국제평화 추진사업
- D. 국제교류·협력사업
- E. 국제화 추진사업을 하고 있고

위탁사업으로는

- A. 피폭체험계승 보급사업
- B. 국제평화 추진사업
- C. 국제교류·협력사업
- D. 국제화 추진사업
- E. 히로시마시 유학생회관 관리운영
- F.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 관리운영

- G. 히로시마 평화도시 기념비 유지관리
- H. 히로시마 국제회의장 관리운영
- I. 국제교류 라운지 및 도서자료 관리운영
- J. 국립히로시마 원폭희생자추도 평화기념관 관리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6-3. 온라인 자료관

6-3-1. 평화박물관(<http://www.peace-museum.org/>)

온라인 박물관으로 핵폐기를 위한 일반시민들이 만든 인터넷 박물관이다. 포토 갤러리를 설치하여 생생한 화면을 제공하고 있다.

6-3-2. Kids 평화스테이션 히로시마

(<http://www.pcf.city.hiroshima.jp/kids/index.html>)

인터넷을 통하여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자'라는 항목에 자유롭게 평화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써서 사람들에게 공지하여 간접적인 평화교육을 시키고 있다. 특히 상징적 실제 인물인 사다코의 일대기를 통하여 평화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기도 한다. 또한 평화학습 발표란을 만들어 각 학교의 평화에 대한 글을 모아 공개하기도 하고 있다.

6-3-3. 평화 데이터 베이스(<http://www.pcf.city.hiroshima.jp/database/>)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 사이트 안에 '피폭자의 증언자료' '영상' '피폭자료' '사진' 등 다양하게 게시되어 있다.

6-3-4. 히로시마 평화사이트(<http://www.pcf.city.hiroshima.jp/peacesite/>)

피폭실험과 실상을 경고하고 핵을 둘러싼 상황, 평화에의 의지 등을 게시하고 있다.

6-4. 지자체의 노력

6-4-1. 나가사키시

초·중학생을 위하여 「청소년 평화포럼」과 「소년평화와 우정의 날개」 외에도 나가사키시 및 나가사키 교육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평화학습 교육 추진안을 만들어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8월 9일 여름방학 중 추모식을 위한 초·중학교 등교 실시
2. 초등학교 5학년 전원이 원폭자료기념관 견학
3. 중학교에서 피폭사진 판넬 순회 전시
4. 공민관·청년의 집 등에서 평화에 관한 학습 강좌·강연회 개최
5. 토요일과 일요일 현 내의 초·중학생에 대한 원폭자료관 무료 개방
6. 초·중학교에서 피폭체험강화 개최
7. 원폭 그림책 '그 여름날' 개발 추진

6-4-2. 히로시마시(<http://www.city.hiroshima.jp/>)

8월 전후로 원폭에 관한 행사를 다양하게 개최하고 있고 핵실험에 대한 항의문 전달, 평화를 위한 연구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수학여행 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화학습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6-4-3. 오키나와현(<http://www.pref.okinawa.jp/>)

오키나와 미군기지를 둘러싼 반환운동과 미군기지 철수 문제, 그리고 오키나와전의 희생자추모와 기념자료관을 통하여 평화운동을 벌이고 있다.

6-5. 민간 활동

평화를 위한 민간 활동도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통역 등의 자원봉사자 활동을 한다거나 히로시마나 나가사키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 당시의 모습

을 정확하게 소개하면서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활동상황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으며 회원의 저변확대를 꾀하고 있다.

6-4-1. 히로시마 평화와 생활을 묶는 회

(<http://webclub.kcom.ne.jp/ma/tmhj/>)

평화헌법을 지키기 위한 민간 모임이다.

6-4-2. 피스디팟(<http://www.peacedepot.org/>)

한국어, 영어, 일본어판으로 되어 있다. 평화교육의 싱크탱크를 지향하고 평화헌법에 대한 반성,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 원폭에 의한 피폭 경험 등을 기초로 일본 시민들이 평화를 위하여 완수할 역할을 추구한다.

6-4-3. 평화를 위한 히로시마 통역자 그룹(<http://www.hipj.org/>)

핵무기 폐기와 세계 평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피폭체험과 평화로의 소망을 널리 세계에 전달하기 위한 모임이다.

6-4-4. 핵무기 폐기를 노리는 히로시마회(<http://e-hanwa.org>)

핵무기 폐기를 위하여 행동하는 개인 개인의 힘을 합친 모임이다.

Ⅶ. 평화교육 관련 주요 사이트

7-1. 샤라쿠노카이(社楽の会)¹⁰⁾의 평화교육 관련 사이트

평화교육에 관한 사이트는 여러개 개설되어 있으나 <표 2>의 사이트는 평화

10) 아이치현 오바리북부(愛知県尾張北部) 사회과 교사들이 만든 모임. 환경문제, 평화교육, 전통문화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http://www.tcp-ip.or.jp/~syaraku/hekorink.htm>

교육을 위한 다양한 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원폭과 반핵, 반전, 오키나와전과 미군기지 문제, 전시생활과 공습, 15년간의 전쟁, 그외, 평화교육의 실천 등으로 나누어 대표적인 사이트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사이트 내용을 간략하고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표 2〉 사랴쿠노카이 제공 평화관련 사이트

사이트	
http://homepage3.nifty.com/peaceco/museum.html (일본의 평화박물관·자료관·연구소)링크	일본의 평화와 전쟁박물관, 자료관, 연구기관, 도서관 등 관련사이트를 데이터 중심으로 작성함
http://www.rose.sannet.ne.jp/nishiha/senso/ (전쟁을 계속 이야기하자)	금후에 기대되는 종합 링크 사이트
http://homepage2.nifty.com/peacecom/medialist.htm (전쟁·평화정보 수집 사이트)	국제정세·국내정보의 최신 뉴스를 보다 빠르고 다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사이트
원폭 반핵 반전	
http://www.pref.hiroshima.jp/hiroshima/bunka/html/legacy3.htm (히로시마현 홈페이지)	원폭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됨
http://www.csi.ad.jp/ABOMB/index-j.html (원폭WWW박물관)	히로시마에 처음 떨어진 원폭에 대하여 상세하게 배울 수 있다. 「평화기념 자료관」의 전시물과 「원폭피해 기록」, 「피폭자의 소리」 등 귀중한 자료와 기록이 정리됨
http://www19.big.or.jp/~higashi/hibaku/index.html (원폭 피폭증언)	나가사키 동고등학교 동창회가 만들었다. 원폭 피폭에 관한 많은 증언들을 축적하고 있음
http://www.city.hiroshima.jp/menu/genbaku.html (히로시마시 홈페이지)	히로시마시 역사를 비롯하여 원폭관련 자료가 풍부하다. 피해 모습과 생생한 영상자료 등을 볼 수 있음
http://www1.city.nagasaki.nagasaki.jp/abm/ (나가사키 평화선언)	나가사키시의 원폭투하로 인한 피해 상황과 세계를 향한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음
http://www.urban.ne.jp/home/kibochan/miyakou/cg.htm (원폭투하의 역사적 순간)	히로시마 현립미야지마공업고등학교가 인테리어 그래픽 작성. 원폭들의 변화를 재현한 CG
http://www.nvccom.co.jp/abomb/ (히로시마 원폭사진관)	피폭 직후의 사진 등이 소개됨
http://hiroshima.tomato.nu/ (히로시마의 마음을 전하는 모임)	피폭 체험담, 피폭 건조물, 위령비 등이 소개됨
http://www.aliga10.net/peacepark/index.html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공원 내의 건조물과 기념비 등이 소개됨
http://prime-fel.lvcablemodem.com/chuckwalla/nukeguide/ (핵 인터넷 자료관)	정부발행의 공적자료와 역사적 문헌, 개인이 수집한 사진과 자료 등이 소개됨
http://www.heiwa-journal.com/ (평화 저널)	히로시마를 원점으로 하여 핵무기 문제와 평화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함
http://www1.city.nagasaki.nagasaki.jp/na-bomb/museum/museum01.html (나가사키 원폭자료관)	시설·상설전시실 개요, 원폭 투하의 기록임

http://www.nagasaki-np.co.jp/peace/ (나가사키 평화사이트1999)	나가사키신문이 피폭 체험 등을 다룬 생생한 리포트
http://www.coara.or.jp/~ryoji/abomb/abombindex.html (원폭에 의한 피폭 이야기)	온라인 COARA에 실린 故테라오(寺尾武治)씨의 원폭체험 수기와 COARA멤버들의 기록
http://peaceact.jca.apc.org/ (반전 평화 액션)	유사법제와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반대하는 지자체 결의와 의견서, 아프카니스탄 문제 자료 등 자료가 풍부함
http://www.worldpeacenow.jp/ (WorldPeaceNow 이제 전쟁은 필요없다)	평화와 평화운동에 관한 정보량이 많음
http://www15.big.or.jp/~peace/weblog.html (평화 웹블로그)	평화를 향한 뉴스를 읽기 위한 페이지
http://www.chikyumura.org/campaigns/peace/ (평화로운 세계를 아이들에게)	행복한 사회의 실현을 위한 깨끗한 환경과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하여 사회문제를 취급한 「네트워크 지구촌」 사이트
http://kids.eeworld.com/Kid's Peace (전쟁은 이제 그만!!)	게시판과 질문 코너가 있고 어린이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전쟁과 테러에 대하여 기술
http://www.nagasakips.com/ (나가사키 평화박물관)	[세계의 정세]에 본쟁·내전지역, 지뢰가 남아 있는 나라, 핵보유국이 지도에 표시됨
http://www.peacedepot.org/frame.html (평화 정거장)	핵군축에 관한 유엔의 움직임과 신 아젠다에 대한 자료, 2002년 일본의 핵군축에 관한 성적표가 들어있음
http://ww2.enjoy.ne.jp/~yorita/index.html (요리타씨의 홈페이지)	히로시마에서 피폭당한 요리타(畠田)씨의 홈페이지
오кина와전쟁 기지문제	
http://www.ryukyuu.ne.jp/~sigeiti/ (오кина와 기지와 평화문제에 대하여)	평화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사이트
http://w1.nirai.ne.jp/ken/ (이차리바 넷)	오кина와전의 그림, 평화선언, 「오кина와에서의 메시지」 등이 실려있음
http://www.pref.okinawa.jp/index-j.html (오кина와현 홈페이지)	미군기지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음
http://www.naha-okn.ed.jp/ (나하시립도서관)	오кина와전에 관한 관계 자료가 많음
전쟁중의 생활	
http://www.tcp-ip.or.jp/~syaraku/HOKITA.HTM (호텔이북초등학교 일지)	전시중의 학교일지에서 본 전시중의 생활
http://www.tcp-ip.or.jp/~syaraku/kikitori.htm (호텔이중학생의 청취결과)	사회과를 선택한 학생이 청취한 사실이란
공습	
http://www5a.biglobe.ne.jp/~othibo/ (杉岡 満良 - 어느 남자의 일생)	도쿄 대공습의 생생한 체험담
http://qmss.t.u-tokyo.ac.jp/QMSS/Biography/TokyoDaiKushu.htm (도쿄 대공습)	도쿄 대공습의 피해 데이터 등이 있음
http://www1.ocn.ne.jp/~susuma/bombing/bomb.htm (일본 공습과 원폭 투하)	미군자료에서 일본공습,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투하를 검증함
http://homepage2.nifty.com/shizuoka-heiwa/ (시즈오카시 평화자료 센터)	시즈오카시 대공습 전시관

15년 전쟁	
http://www.fsinet.or.jp/~kyouko-h/chinacave/nankin/nankin.htm (남경 대학살기념관)	일본군이 중국 대륙에서 취한 행동을 담음
http://www.ritsumei.ac.jp/kic/a06/index.html (국제평화 뮤지엄)	「15년 전쟁의 실태」, 「제2차 세계대전과 전쟁책임」 등 상설전시 안내
http://www.jttk.zaq.ne.jp/type38/ (대동아전쟁)	정보실, 전시, 전시실 등을 설치함
그 외	
http://www1.ocn.ne.jp/~dokugasu/ (독가스섬 역사연구소)	역사적 사실에 눈을 감아서는 안되는 이유
http://www.jca.apc.org/~reiziger/remindwar.htm (전쟁을 기억하는 여행)	네덜란드, 독일, 폴란드, 프랑스, 일본의 전쟁사적을 순회함
http://www.unesco.or.jp/peace/ (유네스코 나의 평화선언)	일본 유네스코협회 연맹사이트 안에 있고 넷상에서 평화선언 서명이 가능함
일본의 움직임	
http://www.mofa.go.jp/mofaj/gaiko/pko/ (일본의 국제평화 협력, 유엔 평화유지 활동)	외무성 사이트 안에 있고 유엔 평화유지활동(PKO)를 소개함
http://www.kantei.go.jp/jp/singi/kokusai/ (정부의 국제평화협력간담회 보고서)	정부의 국제평화에 대한 방향 소개
평화교육의 실천	
http://www.fuchi-j.ed.jp/peace.htm (평화로의 길)	나가사키 시립후치중학교 평화교육 방향을 알 수 있음
http://www.tcp-ip.or.jp/~syaraku/sentaku.htm (고난시립호테이중학교 선택사회과 교과)	선택사회과의 평화교육 방향 등이 소개됨
http://www.intnl.doshisha.ac.jp/index.html (도시샤 국제중고교)	평화교육 프로그램 보고, 학생작품 등이 소개

7-2. 평화교육을 위한 참고 도서 및 교재

(<http://www.tcp-ip.or.jp/~syaraku/heiwa.htm>)

일반서적과 교육용 도서로 나누고 전쟁의 역사서를 따로 구분하여 교육의 자료로서 제공하였다.

7-2-1. 일반 서적

전쟁의 비참함과 전쟁중의 사실을 바탕으로 저술한 내용들이 많다. 사진도 많이 제공되고 있고 이 서적이 영화화된 경우도 있다.

서적명	내용
지도에서 사라진 섬 久野섬 독가스 공장	히로시마에서 가까운 세토나이해협 한쪽에 있는 久野섬은 쇼와4년부터 20년까지 대일본제국 육군 독가스 제조공장이었다. 최고의 군사 기밀로서 지도에서도 사라진 섬에서의 비밀을 찾는다.
어느 쇼와사/ 자기 역사의 시험	15년 전쟁을 겪어온 서민생활을 '개인사'와 함께 그린 연구서. 쇼와사 속의 천황상도 검증하고 있다.
해군 취사병 이야기	취사병으로서 전함 '기리시마'에 승선한 저자의 진주만 기습공격과 미드웨이 해전을 그렸다
BC급 전범의 묘비명	BC급 전범으로 몰린 사람들을 취재한 논픽션
추억의 쇼와/ 지금 되살아나는 뜨거운 생각	정치·사건·풍속·스포츠 등 여러 쇼와사가 기록되어 있다. 만주사변·중일전쟁·태평양전쟁과 전쟁 중 힘을 다하여 살아온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 기록되어 있다. 사진도 많고 당시의 상황을 잘 알 수 있다.
악마의 포식 속·악마의 포식 악마의 포식 제3부	관동군 세군부대 (731부대) 활동을 철저히 조사로 파헤침
전중(戰中)용어집	「대본영(大本營)」, 「전진(轉進)」, 「팔괘일우(八紘一宇)」, 「천인침(千人針)」, 「학동소개(學童疎開)」 등 쇼와10년대를 중심으로 하는 격동기 80년의 키워드를 골라 그 의미와 에피소드를 저자가 이야기 한다. 이 키워드를 통하여 당시의 세상을 풍자한다.
강좌 일본영화 4 전쟁과 일본영화	전쟁은 일본영화에 있어 무엇이었는가. 식민지·점령지까지를 시야에 넣고 국체에 충추는 영화산업과 거기에 머무는 영화인들의 희비극 속에 전통적 대중문화의 공저를 묻는 획기적인 영화사
태평양전쟁	전쟁은 왜 저지할 수 없었던 것일까를 일본의 식민지 지배, 많은 치안입법에 의한 언론의 억제, 교육의 획일화, 군대의 기구에서 논한다. 전쟁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국내, 아시아 제국에서 검증한다. 저자명에서 그 내용이 알 수 있는 책
유령함장	미즈키 시게루(水木しげる)는 남방전선에서 한쪽 팔을 잃은 경험을 갖는다. 미즈키의 전쟁만화는 특별한 생각을 느끼게 한다.
쇼와 전쟁을 움직였던 30명의 계독	해군성과 군영부, 연합함대사령부에서 작전을 계획하고 지도했던 엘리트들을 좇아, 왜 전쟁을 시작했는지 왜 패배했는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움직였는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조사되어 있다.
무명 전몰자들의 목소리 - 치도리가후치 (千鳥ヶ淵)와 쇼와- 이와나미북릿No136	千鳥ヶ淵 전몰자묘원에 잠들고 있는 무명 전몰자 33만여 유골에서 전쟁의 의미를 묻는다. 중학교 교사이면서 시를 계속 써 온 작자의 작품이 소개되어 있다.
전쟁책임을 호소하는 나홀로 여행/ 런던·베를린·뉴욕 이와나미북릿No137	사회 문제를 그림으로 계속 고발해 온 저자가 천황의 전쟁 책임을 각지에서 호소한다.
항공모함 미드웨이와 일본 이와나미북릿No182	5천억엔의 항공모함을 포함한 총2조1천억엔의 항공모함 전투단의 개요와 요코스카 기지로의 길, 핵 의혹 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
식민지에서 자란 소국민 이와나미북릿No186	전전·전중의 교육에 의해 군국청소년으로 자란 저자가 전후 사회과 교사로서 어떻게 행동했는가. 만주에서 자란 유소년기 시절부터 그린다.

전시하의 여성들 일본·영국·독일 이와나미북릿No282	전시하의 일본·독일·영국 여성의 모습을 좇는다. 전국 부인신문에 연재된 것도 넣는다.
정토진중(浄土真宗)의 전쟁책임 이와나미북릿No303	정토진중이 전쟁에 협력한 일, 교학적으로도 전쟁을 긍정한 일을 貞宗大谷派 교학연구소 위탁인 필자가 자아비판을 하고 있다.
연합군 포로학대와 전후책임 이와나미북릿No321	일본이 연합군 포로에 대하여 저지른 전시국제법에 위반한 학대나 학살과 같은 인권침해의 실태를 명확히 하고 전쟁책임을 호소한다.
전쟁박물관 이와나미북릿No328	「전몰자추도 평화기념관」의 설립계획에 의문을 가진 저자가, 컨셉에 맞는 평화기념관의 모습을 제시한다. 그 외에 「전쟁박물관에 바라는 것」, 「아시아태평양전쟁은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가」 등이 기술되어 있다.
일본인의 침략과 일본인의 전쟁관 이와나미북릿No365	‘94.5.3 나고야에서의 강연. 영미동죄(英美同罪)사관, 자위전쟁사관, 해방전쟁사관 등 침략전쟁사관의 비판에 대하여 알기 쉽게 반론하고 있다. 64P
「역사와 여행」중간 태평양전쟁사총람	진주만공격에서 종전일까지 중요전투 100여개를 총망라함
전쟁책임	전쟁책임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검토 「전쟁책임의 구분」, 「일본국가의 전쟁책임」, 「일본국민의 전쟁책임」, 「연합제국의 전쟁책임」, 「전쟁책임추궁의 자세」 등.
도설·태평양전쟁	진주만기습에서 패전·점령·철수까지의 움직임이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다. 사진·지도 외 자료도
생활 수첩 96	특집 전쟁 중의 생활 기록에 관한 이번 호는 책 한권을 전부 전쟁 중의 생활 기록만으로 특집을 만들었다. 한권을 한 주제로 묶은 것은 「생활 수첩」 사상 창간 이래 처음이다.
태평양전쟁총결산 별책 역사독본	일본군실패의 교훈으로 판단·기술·정보 등의 측면에서 보는 것 외에 「도해·태평양전쟁」 「일본의 국력·미국의 국력」, 동경제판과 그 피고 등 태평양 전쟁과 총괄이 한권으로 정리되어 있다.
천황과 도조히데키 (東条英機)의 고뇌 A급전범의 유서와 중전비록	제1부 스가모 프리즌의 A급 전범. 제2부 A급전범의 유서와 서간. A급전범의 스가모 프리즌의 삶의 여러 모습과 어떤 심경으로 죽음을 맞이했는지에 대해 알 수 있다.
일본생활문화사10 군국에서 민주화로	전시중의 모습을 국민생활 시점에서 기술
우리들 소국민 2부	국민학교 교육의 목적과 그 모습. 개전 후의 초등학교 모습
그만 쏘아라 우리들 소국민 3부	아동문학자들의 전쟁협력. 초등학교 교사의 전쟁수행 역할
이길때까지 필요없어요 우리들 소국민 4부	물자부족 속에서 어린이들의 생활모습.
승리의 날까지 우리들 소국민 5부	군국주의 교육에서 전후 민주주의 교육으로의 변화 양상
도라도라도라	진주만공격에 이르기까지의 일본군과 미군의 비화를 모음. 미일개전의 상세한 경위를 알 수 있다.

풀뿌리 파시즘 일본민중의 전쟁체험	아시아에 맹위를 떨치고 완패로 끝난 15년 전쟁을 민중의 시점에서 파헤친 연구서
일본병사의 반전운동	중일전쟁 하. 중국에서 일본군을 이탈하여 반전운동을 전개한 사람들의 활동을. 그 중심인물 중 한사람인 저자가 쓴 것.
도쿄 로즈	태평양전쟁 중. GI들을 환상으로 이끈 일본군의 대적군 선전방송의 히로인 도쿄로즈 일본계 2세로부터 명령을 받은 부인이 조국인 미국으로부터 반역자 취급을 받았던 진실담
보록내 회고(歩六乃回顧)	나고야에 있던 보병 제6연대 회원이 가지고 있던 기념사진과 스케치
우리들 소국민	무모한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시하의 소년들 마음을 황국소년에게 물들게 한 군국주의 교육의 핵심을 들여다본다.

7-2-2. 교육서

아동과 학생용 도서를 중심으로 제공하였다. 아이들의 평화교육을 위하여 사실 위주로 기술하고 전쟁의 피참함을 간접체험하게 하였다. 계몽적인 도서가 많다.

서적명	내용
지도에 없는 섬	大久野섬의 독가스공장에서 국가의 명령으로 동원된 많은 학생들이 일하고 있었다. 독가스 섬에서 일하던 아이들에게 시점을 맞춘 아동용 도서
아이들에게 전하자 이누야마(犬山) 시민전쟁과 평화	이누야마 시내에 사는 전쟁 체험자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겨 있다. 소위 36명의 수기집이다. '아이들에게 전하자'라는 타이틀이 붙은 것처럼 부모자식이 함께 읽고 전쟁의 무의미함, 평화의 존엄성을 함께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B 6 판247P
중일전쟁 평화인가 전쟁확대인가	일본근대사에 공적이 있는 저자가 정치적 판단 착오가 얼마나 중요한 결과는 가져오는 지를 설명한 책 문고본200P
이와나미 주니어 신서 5 「도쿄가 불탄 날」 -전쟁과 중학생-	도쿄 대공습을 체험한 저자가 철저하게 자료를 모으고, 생존자의 증언 등을 기록해서 공습 때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현. 전쟁 당시의 아동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그렸다.
전쟁과 평화 소년소녀의 기록[전10권]	제 1 권 살머시 다가온 폭풍우*15년간 전쟁의 시작 제 2 권 마을 아이들*가난에지지 않고 제 3 권 강하고 듚적하게*친구들·학교·가정 제 4 권 전시 하에 산다.*어린 전사 제 5 권 끝없는 싸움*전장으로 가는 아버지와 형 제 6 권 목숨이 있는 한*섬의 한 병원의 어린이들 제 7 권 처음으로 안 전쟁*패전 후의 미래 제 8 권 의투이가 불탄 흔적*상처받은 10대의 기록 제 9 권 불안에 넘친 출발*전쟁은 끝났지만 제 10 권 다시 돌아온 고향*평화 국가를 세운다.
반딧불 묘	애니메이션 A4변형판111p

어른이 되지 못한 동생들에게...	전쟁에서 먹을 것이 없어 어른이 되기 전에 죽은 동생, 아니 많은 희생자를 추모하는 그림책 A4 변형판 36p
「전쟁과 어린이」	오키나와전을 중심으로 전쟁사진과 기록을 모아 만든 것.
소년 아사히 연감 1986 사회과 학습 일러스트로 알 수 있는 전쟁 중의 아이들 생활	당시 전후 40년 특집. 전쟁 중 아이들의 생활을 상징하는 일러스트집
비(碑)	피폭된 히로시마2중학교 기록. 죽은 학생의 얼굴사진 등도 있다.

7-2-3. 통사(通史)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서술한 내용의 저서가 많다. 사진과 풍부한 자료뿐만 아니라 20세기 역사에 나치독일에 관한 부분도 서술되는 등 그 당시의 전반적 역사흐름의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다.

서적명	내용
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郎)편 일본역사 6 다이쇼 데모크러시 전쟁의 길	
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郎)편 일본역사 7 15년전쟁	15년전쟁의 시점에 서서 전쟁의 경과와 국민생활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사진과 그림, 표 등도 풍부하다.
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郎)편 일본역사 8 전후 민주적 재개혁 강화조약성립과 평화로의 길	
이와나미강좌 일본역사 근대 7	「만주침략」 이노우에 키요시(井上清) 「준전시체제」 야마모토 시로(山本四郎) 「일본 파시즘론」 후루야 태츠오(古屋哲夫) 「중일전쟁의 전면화」 에구치(江口圭一) 등 논문집
이와나미강좌 일본역사 근대 8	「제2차대전과 일본」 이마이 세이치(今井清一) 「태평양전쟁」 由井正臣 「전시하의식민지」 스즈키 다카시(鈴木隆史) 등의 논문집
일본과 세계의 역사 20세기 Ⅲ	제2차 세계대전 일본국내뿐만 아니라 유럽전선 등도 상세히 기술
대제일본역사13 근대일본의 출발	메이지유신부터 다이쇼 데모크러시까지의 시대를 통사로 정리한 것
대제일본역사14 두개의 대전	제1차 세계대전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를 통사로 정리한 것

아사히 백과 일본역사 11 12	사진과 표 등 풍부한 자료로 해설
쇼와역사 전10권 쇼가쿠칸 문고판 (46판도 있음)	한사람이 한권을 책임편집해서 새로운 해석이 많아 재미있다. ①쇼와로의 태동 ②쇼와의 공황 ③천황의 군대 ④15년 전쟁의 개막 ⑤중일전면 전쟁 ⑥쇼와의 정당 ⑦태평양전쟁 ⑧점령과 민주주의 ⑨강화조약에서 고도성장으로 ⑩경제대국
쇼와 제7권 폐허에서 출발 쇼와20년~21년 격동과 신생의 2년간	쇼와20년 1월1일부터 쇼와21년 12월31일까지의 일이, 매일 그날의 신문기사와 당사자와 학식경험자의 증언 등을 섞어 일지처럼 쓴 것. 사진과 도표, 통계가 알기 쉽게 나타나 있고 수업자료로서 이용할 수 있다. B5판P340
쇼와 이만일의 전 기록 고단샤 전19권	쇼와에 매일 일어난 사건과 각지의 날씨, 기온까지 들어있는 대단한 책임. 전19권 ①대륙에 피어오르는 전쟁의 불 ③비상시 일본 ④중일전쟁에의 길 ⑤1억의 신세계 ⑥태평양전쟁으로 이어진다. 사진도 풍부하고 물가 등도 상세. 풍속에도 강함
아사히 백과 일본역사 11~12	풍부한 사진과 자료로 역사를 해설
아사히 백과 일본역사 11	제1차대전에서 제2차대전·태평양전쟁까지를 소개
아사히 백과 일본역사 12	패전과 원폭투하·전후점령정책에 대해서. 아사히 백과·주간 일본역사의 제본판 자료가 풍부하다. 352p
만화 「일본역사」 현대 편 1~5	이시노모리 쇼타로(石ノ森章太郎)씨의 손에 의해 어른을 위한 역사만화. 청일·러일에서 태평양전쟁에 이르기까지의 시대적 배경을 파악하는데 한번 읽을 가치가 있음
코믹 쇼와사 1~8	미즈키 시게루(水木しげる)자신의 체험과 감상을 쓴 쇼와사. 전쟁관계가 6권을 차지한다.
20세기 역사 70 1930년대를 맞이한 일본	시리즈 전체가 풍부한 사진과 신문에서 당시의 세상을 해설. 부흥을 이룬 도쿄와 지방농촌의 어려움이 대조적이다.
20세기 역사 71 비상시 일본	비상시 일본·방공연습·국제연맹탈퇴 등. 당시의 세평을 그린 일러스트가 흥미로움
20세기 역사 73 나치스 독일	나치스 독일·히틀러 독일·게슈타포 등 귀중한 사진도 많다.
20세기 역사 74 인민전선의 파도	프랑스와 스페인의 인민전선의 성립을 좇는다. 설명은 간결하고 알기 쉽다
20세기 역사 79 문명의 대중화	나일론·토키·사진잡지 창간 등. 현대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
20세기 역사 81 배틀린 올림픽	올림픽이 정치적 도구로 변한 상징적 대회. 히틀러를 맞는 개회식, 마라톤 우승의 손기정선수 등 화제가 많다.
20세기 역사 82 전쟁으로의 경사	2·26사건, 전시체제로의 길 등. 1931년 신문에서는 일본의 암호가 미국에 들통 난 기사가 실려 있다.
20세기 역사 83 열강의 군비증강	독일재군비·소련의 군비 등. 일본은 제3차해군 보충계획으로 야마토형 전함 2척을 계획
20세기 역사 84 추축의 성립	추축의 성립·영불의 전략·이디오피아전쟁·일독방공협정 성립 등. 토요타자동차 탄생의 모습도
20세기 역사 86 만주의 건설	황제제도실시·만주의 중공업·개척이민 등. 신동아자원개발 해설지도가 흥미롭다. 수업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20세기 역사 87 서안사건	항일운동의 격화·모순·연안·모택동 등. 항일전선통일의 흐름을 쫓는다.
20세기 역사 88 중일전쟁 1	로구교사건·상하이의 싸움·난징학살·항일인민전쟁의 전개 등
20세기 역사 89 중일전쟁 2	난징에서漢口로·충칭정권의 배경·국제도시상하이 등.
20세기 역사 90 중일전쟁하의 일본	국가총동원법·총력전과 농촌·전쟁과 가요곡·전시체제와 미술 등. 전시중의 국민생활을 쫓는다.
20세기 역사 91 히틀러의 의도	나치스 독일의 전쟁준비·「나의 투쟁」이 노리는 것·오스트리아 합병 등. 그림과 사진이 굉장하다.
20세기 역사 92 1930년대의 동남아시아	호치민·동남아시아와 일본 등. 동남아시아의 대공황의 영향을 쫓는다.
20세기 역사 96 제 2 차 세계대전의 발발	전쟁발발·폴란드침공·영국의 방위체제 등. 결국 시작되어 버렸다.
20세기 역사 97 독일 전격작전	소련=핀란드 전쟁·노르웨이 진입·프랑스 항복 등. 독일의 세력을 알 수 있다.
히틀러의 유럽지배	아리아의 참전은 독일에 있어 어떤 것이었을까
20세기 역사 99 장기전과 지구전	戰陣訓과 日光·항일근거지의 발전·일본이 만든 국민정부 등
20세기 역사 100 신체제운동	근위신체제·다이쇼의찬회(大正翼賛會)와 국민통제·기원2600년·초등학교 등. 기원2600년이 흥미롭다.
20세기 역사 101 전쟁의 그늘	영국사회의 변천·나치스 독일의 전시경제와 국민생활(일본)·조르게 사건 등
20세기 역사 102 태평양전쟁에의 길	흔미한 일본의 진로·북부불인(北部不印)진주·미일조약과 일소중립조약·「야마토민족 피해자론」 등
20세기 역사 103 독·소개전	레닌그라드 공방전·대서양현장·관동군특종연습·야마시타군사 시찰단과 기갑부대 등
20세기 역사 104 진주만 일격	미일교섭의 파기·「니이타가야마/플레1208」·진주만기습 등
20세기 역사 105 승리에의 환상	일본판 전격작전·대함거포주의로의 전환·전함 야마토·전쟁과 문화인 등
20세기 역사 106 대동아공영권의 꿈	대동아공영권 구상·해방군과 점령지통치·아시아대륙횡단의 꿈·청함공작 등
20세기 역사 107 전국전환에의 길	도쿄공습의 충격·미드웨이 해전·타이요마루의 비극·도코 재체제 등
20세기 역사 108 레지스탕스와 민족해방운동	레지스탕스·팔레루치자·해방구의 확대·일본국내의 참전과 반전 등
20세기 역사 109 전쟁체제와 민중	대조국전쟁·일본군점령하의 중국·갖고싶어하지 않습니다 이기기까지 등
20세기 역사 111 연합군의 반격 1	연합군의 반격체제·북아프리카에서의 승리·스타린그라드의 공방·솔로몬의 사투 등
20세기 역사 112 연합군의 반격 2	동부전선에서의 공세·이탈리아전선·마루타·절대국가로의 진입·일본의 레이다 등
20세기 역사 113 연합군의 반격 3	노르만디 상륙작전·에루베베에의 길·파리해방·독일 대폭격·인팔작전 등

Ⅶ. 결 론

전후 50년까지의 일본의 평화교육은 단순히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전쟁교육이 주를 이루었다. 그 후 일본의 평화교육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에 의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단순한 지식습득에서 벗어나 자율적이고 보편타당한 평화교육을 위하여 진보적 학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시도가 진행 중이며 실질적인 결과에서 그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일본 전역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평화를 위한 노력은 학계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나 공공기관, 민간활동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히로시마는 세계 평화연구의 중심지가 되고 있고 전쟁의 직접적 피해를 심하게 입었던 나가사키나 오키나와에서는 각 기념자료관을 통하여 전쟁의 비참함을 알림과 동시에 전 인류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또한 순수 민간단체들이 자발적 활동에 의하여 핵무기폐기와 역사, 환경 문제 등을 평화의 중심에 놓고 올바른 해결을 위한 길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평화를 위한 노력을 위하여 체험을 통한 분쟁 해결의 힘을 기르고 이를 위해서 끊임없는 신뢰와 이를 교육의 틀 속에 포함시켜 실행시키려 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일본의 평화교육의 과제는 일본의 식민지정책이나 침략전쟁을 현지에서 학습하기 위하여 한국이나 중국으로의 수학여행을 통하여 자기를 인정하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 타인을 배려하는 근본적 문제해결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서 진정한 평화의 길이 열린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본의 평화교육은 자발적인 실천을 통해서야 비로소 평화교육의 완성도를 높이게 될 것이다. 남에게 보이는 평화교육이 아닌 스스로에게 실천하는 평화교육이 일본이 지향해야 할 평화교육이며 그 길을 향해 한발씩 나아가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 고 문 헌

- 石原昌家ほか3人, 『争点・沖縄戦の記憶』, 社会評論社, 2002
- 日教組平和学習冊子編集委員会編, 『総合学習時間に生かす/これが平和教育だ』, アドバンテージサーバー, 2001
- 西田勝・平和研究室編, 『世界の平和博物館』, 日本図書センター, 1995
- 村上登司文, 『平和教育の世界的動向』(『平和研究』 No.19), 1995
- 田村栄一郎, 『日本の教育とナショナリズム』, 明石書店, 1988

〈참고자료〉

- 沖縄平和祈念資料館, 『沖縄平和祈念資料館ワークブック』, 平成15(2003)
- 『資料館学習の手引き』, 平成13(2001)